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며 시대를 담는 그릇이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하면 건축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 현대가람은 굳이 '현관 기와집'을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현대가람의 새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현대건축가 김계천씨의 담양 정도사.

시대·대중 담아야 좋은 사찰

가람의 장면들

현대가람 조건

김봉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교수〉

불 교건축을 공부한다는 것은 기쁨인 동시에 좌절이다. 선조들이 이룩해 놓은 위대한 가람들에 파묻히면, 늘상 새로운 영감과 깨달음의 기쁨으로 가득하다. 그러나 현재 새롭게 세워지는 사찰 건축들을 바라보면 애처로움과 함께, 그처럼 찬란한 유산을 받았으면서도 왜 이처럼 유치하고 추악한 건축밖에 할 수 없는가 깊은 좌절에 빠지게 된다.

건축은 시대의 거울이며, 시대를 담는 그릇이다.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변하면 건축 역시 변할 수밖에 없다. 그 변화를 거부하고 과거의 인습을 고수하려는 태도를 일컬어 '시대착오'라 한다. 현재의 불교건축, 특히 도시속에 건립되는 포교당이나 도시사찰이 바로 시대착오적 건축의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몇 해 전, 매우 반가운 전화가 걸려왔다. 서울 근교에서 작은 선원을 열고 계신 젊은 스님인데 자신의 선원을 현대적으로 건축하고 싶으니 설계를 의뢰한다는 것이다. 항상 불교건축의 현대화를 열망하던 필자는 너무 좋은 기회라 정말 열심히 설계에 임했다. 스님과 방패 현대화에 대해 토론도 했고, 대지도 여러 차례 방문하면서 최선의 안을 구성했다. 드디어 야심적인 설계안을 공개하는 날. 스님은 무척 당황하면서, 자신이 생각한 '현대화'란 한옥 기와집을 약간 변형한 정도였지. 이처럼 콘크리트조의 새로운 형태는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만들어진 설계안과 생각이 너무 좋아서 설득되고 있는 중이니 며칠만 여유를 달라고 했다.

기대에 부른 기대감 끝에 며칠 후에 드디어 연락이 왔다. 그러나, 큰스님께 여쭈었다니 '절집이란 자고로 기와집이야 어야 해'라고 크게 구자함을 들어 어쩔 수 없이 취소한다는 통고였다. 현재 그 자리에는 100평 정도되는 거대한 한옥 법당이 주변 자연을 압도하며 서있다. 1300년 전, 신라의 국력을 모아 창조한 경주 석굴암의 예를 보자. 석굴암의 구조 기법이나 공간형식은, 당시로서는 가장 현대적이며 국제적인 최첨단의 하이

기와·단청 집착 시대착오 도시·현대·예술성 '열쇠'

테크 건축이었다. 역사상 그러한 예가 없는 이질적이며 이국적인 형식이었다. 그러나 석굴암이야말로 가장 뛰어난 불교건축이요, 한국적 전통이 되었다. 석굴암의 건축가인 김대성이 적당히 과거와 전통을 받아들여 그렇고 그런 기와 집들을 지었다면, 지금과 같이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유산이 되었겠는가? 석굴암은 오늘날 '전통은 늘상 새로운 시대에 의해 유지되고 발전된다'는 명백한 진리를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다. 현대 가람은 세가지 조건, 즉 도시성, 현대성, 종교적 예술성을 가져야 한다. 도시 속의 가람은 넓은 자연환경에 둘러싸인 과거의 건축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땅값이 비싸 대지는 협소하여, 앞뒤로는 고층 건물이 숲을 이루고

있다. 도시가람은 광연적으로 고층화 고밀화될 수밖에 없다.

또한, 현대 가람은 현대적 재료와 공법, 현대 미학을 받아들여 시대와 함께 호흡하는 건축을 보여야 한다. 한식 기와집에 대한 집요한 애착은 불교 자체를 시대착오적이고 늙은 종교로 인식시킬 우려까지 있다. 장년층에 불교가 어필하지 못하는 이유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교건축은 세속건축과는 다른 불교적 예술성을 가져야하는데, 벽면에 불상을 조각한다거나 단청을 칠하는 정도의 상징성은 역시 시대착오적이며, 현대적 감흥을 불러일으키지 못한다. 가람을 장엄한다는 것은 불자들 뿐 아니라, 일반 중생들에게 예술적 감흥을 일으켜 불상을 깨닫게하는 것이다. 절단 매스미디어와 이미지에 익숙한 일반 시민들을 감동시킬 건축은 무엇인가? 대부분 불자들과 스님들이 고집하는 한옥 기와집은 1~2세기 전의 것이다.

물론 세가지 조건을 충족시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교계의 결단과 의지가 우선 있어야 하고, 능력있고 진지한 전문건축가들이 참여해야 가능하다. 뛰어난 건축가들이 설계한 교회건물은 부지기수인데, 왜 불교건축은 거의 찾아볼 수 없는가? 필자가 아는 한, 서울 능인선원(건축가 황일인)이나 담양의 정토사(건축가 김계천) 정도가 전부이다. 매년 적어도 예닐곱개의 교회들이 그해의 건축상을 수상하고 있는데, 심지어 강원도 산골에 세워진 작은 사찰교회마저도 건축가들의 순례지가 되고 있는데, 불교 가람은 몇 개나 일반사회에 내놓을 수 있을까?

부처님의 진리는 영원하지만, 대중에게 맞는 방편에 맞는 설법을 하셨다. 한국 가람건축의 위대함은 바로 시대마다 그 때를 호응하는 건축을 발전시켜온 점이다. 그 위대한 전통이 현재는 단절되어 있다. 현대적 방편에 맞는 가람건축은 언제나 가능한가?



◇선운사 대웅보전 창방. 두마리의 물고기가 물결 피도속에서 헤엄치고 있다.

불교조형물에 나타난 전통 문양

자/연/문/양

구름-내세 암시...범종 등 새겨 불-깨달음·지혜의 빛 시사 물결-끊임없고 걸림없는 수행



◇용주사 법당 천정의 비현상. 구름문양이 조각돼 있다.

불단 장엄...자유·신성 상징

구름문양, 물결문양, 화(火)문양 등 자연의 모습을 형상화한 문양들은 주로 동불과 석불, 부처, 보살의 모습 등과 함께 어우러져 표현된다. 비현상에 나타난 구름문양이나, 대웅전 불단의 정면에 표현된 구름문양, 물결문양 등은 불전의 신성함을 나타내기엔 충분하다.

▲구름

자연문양 가운데 구름문양은 불교조형물뿐 아니라 고분벽화를 비롯하여 여러곳에서 두루 접할 수 있다. 구름이 장식문양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은 항상 움직이며, 고정되지 않는 형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구

름은 환상적 경치나 내세를 표현하기에 적합하다고 여겨졌고, 예로부터 수많은 신화와 전설 속에 이를 형상화한 문양이 사용되었던 것이다.

구름문양은 법중에 주로 나타난다. 신라종에는 천의를 너울거리며 꼬리가 긴 폭구름을 타고 하늘에서 악기를 다루고 있는 비현상과 함께 어울리고, 고려종에는 꼬리구름 위에 놓인 연꽃자리에 홀로 앉은 부처님이나 보살의 모습이 표현돼 있다. 또 불교 사물(聖物)인 법고와 운판에도 구름문양이 있다.

▲불

불상의 머리나 몸체 뒤쪽에 있는 원형 또는 배 모양의 장식물인 광배는 부처님의 몸에서 나오는 빛을 상징화한 것이다. 부처님이 발신하는 일체의 빛은 깨달음의 정신적 에너지이며 지혜의 상징이다. 이 빛은 미방의 어두움을 파하고 지리를 드러내는 광명이며, 항상 사방세계를 민들없이 비추는 무량광이다.

이 불상의 두 어깨 위로 솟는 불꽃을 표현한 화문양이 나타난다. 화염은 빛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으므로 광배에 화염의 형상을 그려거나 조각하는 것이다. 국립부여박물관 소장품인 금동보살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 경주 구황동 금제여래입상, 서산마애삼존불상 등의 광배에 화문양이 표현돼 있다.

▲물결

종배문양이나 십장생도 등에서 도식화된 물결문양을 접할 수 있다. 물결문은 남수(浪水), 입수(立水), 와수(臥水)의 세 형식을 갖추고 있다. 남수는 수면위로 튀어 오르는 물방울을 표현한 것이며, 입수는 무지개와 비슷한 모습이고, 와수는 물고기 비늘과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

남양사 극락보전 내벽의 이백기경도에서도 물결문양을 찾아볼 수 있다. 이백이 고래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는 모습을 그린 것인데, 자연스레 흐르는 물결모양을 표현했다. 불교 사물 가운데 하나로 항상 눈을 뜨고 있는 물고기처럼 수행을 게을리 하지 말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목어(木魚)에서 와수 형식의 물결문양을 발견할 수 있다.

이은자 기자



◇취서사 석조비로자나불좌상의 광배에는 화염이 사실적으로 표현되었다.

인터넷 불교쇼핑 마하몰 연말연시 특선 상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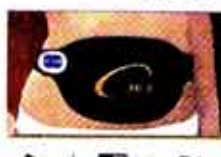
www.mahamall.co.kr 02)732-1522

108 나한단주



산죽송이버섯을 조각한 100% 수공예 칠푼 열주 한 알에 6명의 나한님이 조각되어 있음
가격: 20,000원 (고급케이스 포함)

요 건강벨트



내용물 건강벨트, 온도조절기, 어댑터, 시가잭 충전기/벨트 (휴대용 구입시)
가격: 가장음 305,000원, 휴대용 180,000원

삼보죽염 세트



활모기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전문죽염 제조장(이대, 인건문화재단) 호신스님께서 기술교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600g / 가격: 105,000원

죽 비



부리죽비(대) 20,000원, 부리죽비(중) 20,000원, 부리죽비(소) 20,000원, 달인죽비(대) 18,000원, 보양죽비(대) 12,000원, 죽비세트 53,000원 (부리, 대, 부리, 달인)
대나무 밑 부분을 쓰고 40cm 이상 들어가야(일반형 이상) 타 제품보다 튼튼하다. 대나무 1그루당 죽비 1개 제공만 생산

신형수첩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 - 예복, 현금, 법첩, 의계, 전봉기까지 - 신형수첩과 실지 할때기를 요망가게

연꽃 불자시계



◎ 특별시계용 (남자시계용, 여자시계용) 불자들이 위한 연꽃 불자시계 항상 부처님을 생각하고 특별한 시계를 원하는 불자들에게 인생 맞춤형 시계 선물, 어상을 각각 119,000원

만다라 옥침



양손에 쥐고 움직여 주변 손바닥에 경혈을 자극하여 혈액순환이 증진되고 고혈압, 동맥경화 등 고질적인 성인병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가격: 30,000원

합천 전통 한과



한국 특가 (279g) 50,000원, 한국 바나나 (19g) 80,000원, 한국 바나나 (19g) 80,000원, 한국 오동나무 (19g) 50,000원, 한국 진사탕 (28g) 22,000원, 한국 진사탕 (19g) 30,000원, 한국 진사탕 (19g) 45,000원
합천 합천리 해인사 법당소리가 낭랑하게 들리는 가이산 자락에서 재배한 삼과, 개, 팥 등 합천 특산물로 사용하여 현대인의 건강과 맛있게 먹는 우리 전통의 과자입니다

경 상



재질: AS(느릅나무) 원진원목
규격: 70cm (가로) x 30cm (세로) x 30cm (높이)
가격: 85,000원

사이버 에밀레 종



순신대학교 전자공학과 배명진 교수가 첨단 공학 기술로 개발 성공한 원음 모음은 신중의 종소리를 완벽하게 재현하였다
정사각형 에밀레종: 210,000원, 팔각형 에밀레종: 250,000원

옴 문양 실크스카프



소재: 100% 실크(트립) / 색상: 아이보리, 네이비
규격: 90cm x 90cm / 가격: 30,000원

참선명상방석



일 방 30,000원, 숫7방 35,000원, 향보방 30,000원, 실용신안 1998-02509, 의정등록 제 1402 호
안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백화향 선물세트



백화향 + 신자단향 + 천연목향 + 향꽃이
가격: 50,000원

와 발 우



향으로 만든 수형자의 그릇
가격: 4합 60,000원 (무게 2.7kg), 2합 30,000원 (무게 1kg)

왕사성의 비극



부처의 지혜는 고통받는 자에게 전적으로 무계를 두고 있다. 물가에서는 노는 아이보다도 물에 빠진 아이를 구제하는 것이다.
비디오 (시각 35분)
책 포함 가격: 20,000원